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과’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 모형을 통해 ㉡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 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2. 윗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3. 다음 중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언어 : 세계

㉡. 명제 : 사태

㉢. 논리적 그림 : 의미 있는 명제

㉣. 형이상학적 주체 : 경험적 세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4. 밑글로 미루어 보아,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초 브루넬레스키가 제안한 선원근법은 서양의 풍경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정된 한 시점에서 대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학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러한 풍경화의 원리를 재해석한 ‘풍경론’을 통해 특정 문학 사조를 추종하는 문단의 관행을 비판했다.

고진에 따르면,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내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모든 풍경은 내가 새롭게 발견한 대상이 된다. ‘풍경’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해서가 아니라 주관에 의해 지각될 때 비로소 풍경이 된다.

고진은 이러한 과정을 ‘풍경의 발견’이라 부르고, 이를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연결시켰다. 가령, 작가 구니키다 돗포의 소설에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정작 자기 주변의 이웃과 사귀지 않고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이나 이제는 만날 일이 없는 추억 속의 존재들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죽어갈 운명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면서, 주인공은 인간이란 누구든 다 친근한 존재들이라 말한다. 실제 이웃과의 관계 맺기를 기피한

채, 주인공은 현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살고 있다. 고진은 인간마저도 하나의 풍경으로 취급해 버리는 주인공으로부터, 전도(顛倒)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발견하는 ‘내적 인간’의 전형을 읽는다. 이로부터 고진은 “풍경은 오히려 외부를 보지 않는 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고진의 풍경론은 한쪽에서는 내면성이나 자아라는 관점을, 다른 한쪽에서는 대상의 사실적 묘사라는 관점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문단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주관의 재현과 객관의 재현을 내세우기에 마치 상반된 듯 보이지만 사실 두 관점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은 주관에 의해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본래적인 세계의 모습이라 믿는다. 풍경의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풍경의 밖에 서 있다고 믿는 것이다. 고진은 만일 이러한 믿음에서 나온 외부 세계의 묘사(模寫)를 리얼리즘이라 부른다면 그것이 곧 전도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리얼리즘의 본질을 ‘낯설게 하기’에서 찾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견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너무 익숙해서 실은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견해를 따르다면, 리얼리즘은 항상 새로운 풍경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리얼리스트는 언제나 ‘내적 인간’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자신이 풍경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작가 나쓰메 소세키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이 참고해 온 문학책들이 자신의 통념을 만들고 강화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책들을 전부 가방에 넣어 버렸다. “문학 서적을 읽고 문학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진은 소세키야말로 자신이 풍경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이라 본다. 일단 고정된 시점이 생기면 그에 포착된 모든 것은 좌표에 따라 배치되며 이윽고 객관적 세계의 형상을 취한다. 이 세계를 의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고정된 시점 자체에 질문을 던지며 회의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풍경 속의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선원근법에 의존하지 않는 풍경화, 예컨대 서양의 풍경화가 아닌 동양의 산수화를 고려한다면 고진의 풍경론은 달리 해석될까. 기하학적 투시도법을 따르지 않은 산수화에는 그야말로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재현된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산수화의 소나무조차도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소나무라는 관념을 묘사한 것이지 특정 시공간에 실재하는 소나무가 아니다. 요컨대 질문을 던지며 회의한들 그 외의 방식으로 세계와 대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막연한 불안이 생기는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전도된 시선을 의심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전도된 시선의 기만적 구도는 풍경 속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 의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이 미묘한 앞뒷면을 동시에 살피려는 시도가 없다면, 우리는 풍경의 발견이라는 상황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단지 풍경의 눈으로 본 문학만을 쓰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5.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브루넬레스키의 선원근법은 풍경화에 사실감을 부여했다.
- ②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익숙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③ 산수화와 풍경화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대상의 재현 양상이 대비된다.
- ④ 나쓰메 소세키는 문학 서적을 통해서 문학을 연구하는 작업이 자기 반복이라고 보았다.
- ⑤ 구니키다 뎃포는 공적 관계를 기피하고 사적 관계에 몰두하는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6. 전도된 시선¹⁾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계의 미묘한 앞뒷면을 동시에 살피는 것이다.
- ② 내면의 세계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 ③ 현실을 취사선택하여 비현실적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 ④ 실재로서 존재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는 것이다.
- ⑤ 주관적 시각을 통해 구성된 세계를 객관적 현실이라 믿는 것이다.

7. 윗글에 따를 때 고진의 관점에서 <보기>에 나타난 최재서의 입장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재서는 내면성과 자아의 실험적 표현을 추구하는 이상의 소설을 사실적 묘사라는 관점에서 ‘리얼리즘의 심화’라고 비평한 바 있다. 이상의 「날개」에는 돈을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친구를 사귀지도 않으며 자신의 작은 방을 벗어나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최재서에 따르면, 자폐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 지내는 사내의 심리에 주목한 「날개」는 특정 대상의 내면까지도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를 들이대어 투명하게 조망한 사례이다. 대상에 따라 관점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문학 작품의 해석에 미리 확정된 관점이나 범주란 없다는 것이 최재서의 결론이다.

- ① 대상에 따라 관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서양 풍경화의 방식으로 재현되는 것이라 해석되겠군.
- ② 작품 해석에서 미리 확정된 범주란 없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주관의 외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풍경 속의 불안을 벗어난 것이라 해석되겠군.
- ③ 내면성과 자아의 실험적 표현을 추구하는 작품도 리얼리즘에 속할 수 있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풍경 안에 갇혀 있음을 자각한 것이라 해석되겠군.
- ④ 「날개」가 대상의 내면에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주관의 재현과 객관의 재현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것이라 해석되겠군.
- ⑤ 이상이 「날개」에서 자폐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 지내는 사내를 그렸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풍경을 지각하지 못하는 ‘내적 인간’의 전형을 그린 것이라 해석되겠군.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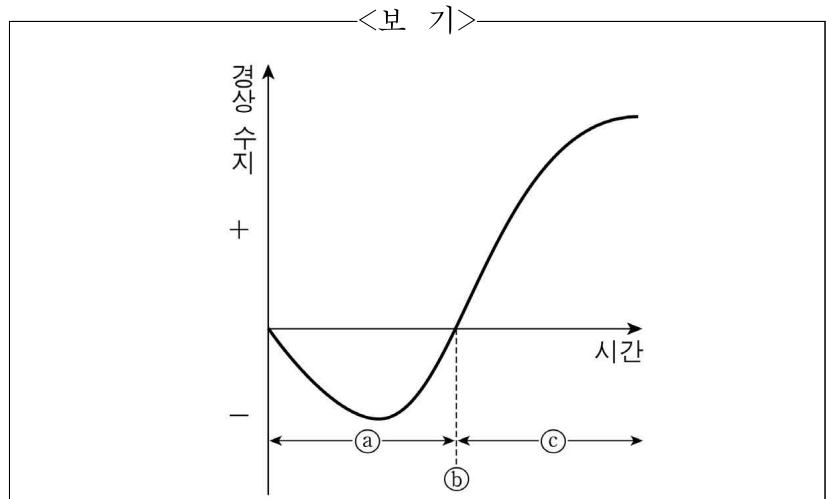
* 환율: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8. 밑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로부터 예금을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일이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며, 국민 경제 차원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고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늘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나아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 관념이 희박하고 소득 창출 능력 또한 떨어지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면서도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다.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 그것이다.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먼저 두 명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한 후 이들이 매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면 그 다음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들이 모두 상환에 성공하면 마지막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소액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그라민은행’은 99%의 높은 상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장기용자 대상자 중 42%가 빈곤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사업을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 요건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연대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영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들 단체의 실험은 금융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임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산 입에 거미줄 치랴.
 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ㄷ. 궁핍은 매섭지만 좋은 교사이다.
 ㄹ.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들을 대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업 교육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기 때문이겠군.
 ② 매주 조금씩 분할 상환하게 한 것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겠군.
 ③ 자발적으로 짝을 짓도록 한 것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겠군.
 ④ 동료가 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성원 간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겠군.
 ⑤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추가 용자를 제공하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군.

13. ‘마이크로크레딧’ 운동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높은 헌신성에 기반하여 묵묵히 훌륭한 성과를 내던 단체들이 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면 초심을 잃고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양질의 창업 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도록 하려면, 이들 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

- ①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 대신 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②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대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한다.
 ③ 창업 지원 담당자의 보수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④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⑤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조성하고, 단일한 중앙 조직이 전국의 각 지점을 통해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무역을 존중하며 자랐다. 자유 무역을 옹호했던 19세기 사람들은 국제 분업이 자원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나아가 자유 무역이 특권과 독점에 맞서는 진취적 정신을 북돋우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자유 무역이 여러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적지 않게 달라졌다. 이제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극대화하는 편보다는 극소화하는 편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사상·지식·예술·친절·여행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재는 가능한 한 국산품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은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것은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 무역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 사이의 저울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19세기에는 경제적 국제주의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먼저, 대규모의 이민과 함께 구대륙의 기술과 저축도 신대륙으로 함께 건너갔다. 영국의 저축과 기술로 건설된 철로와 기차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미국 곳곳으로 실어 날랐다.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영국으로 환류되었고, 검약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시카고의 투기자가 독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점이 거의 없다. 둘째로, 국가들 사이에 산업화의 수준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현저하게 달랐던 때는 국제 분업의 고도화가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국제 분업의 경제적 이익이 오늘날에도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천연 자원, 문화 수준, 인구 밀도, 타고난 기질 등이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국제적 특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의 경제적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단일한 국가적·경제적·금융적 조직에 속하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최신의 대량 생산 공정은 거의 같은 효율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富)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경제 속에서 원자재와 공산품은 개인 서비스,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 공간 등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자립도의 증대에 따른 원자재 및 공산품의 실질 비용 상승은 다른 종류의 이익들에 견주어 보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 자족적 국민 경제는, 비용은 들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호사(豪奢)가 된 것이다.

자족적 국민 경제는 그 자체가 이상(理想)이 아니라 다른 이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기 위한 조건이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중앙 통제보다는 가능한 한 사적인 판단과 사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즐겨 상상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은 민간 기업의 구조에서는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국제 금융 시장의 작동을 통해 단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적 국제주의가 가져다 줄 물질적 번영은 새로운 이상 사회의 그것에 크게 못 미칠 것이다. 물론 사적 수익성의 논리로 보자면, 국경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에 자신의 저축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대되면, '자본 탈출'의 위협으로 인해 적절한 국내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적 수익성 그 자체마저 망쳐 놓는 긴장과 반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실험을 행하자면, 다른 곳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그 기준을 바꿔야 할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이다. 버려야 할 것은 재무장관을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처럼 보는 통념인 것이다.

- J. M. 케인스, '자족적 국민 경제' -

14. 글쓴이가 주목한 시대적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기술 혁신으로 공산품의 국가 간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었다.
- ②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국내의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 ③ 금융 이동 규모의 증대에 따라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받게 되었다.
- ④ 원자재의 실질 비용 상승이 주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 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이자율 격차가 심화되었다.

15. ㉠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자족적 국민 경제는 사회적 가치들이 제고되는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 ② 비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국민 경제의 성장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 ③ 기업에 의한 자원 배분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④ 공공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제하고,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이동은 확대해야 한다.
- ⑤ 자족적 국민 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16. 윗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이자율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 ② 금리를 크게 낮추는 정책은 부동산 투기, 주가 거품 등을 유발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훼손할 것이다.
- ③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금융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는 물론, 정치적 자유마저 억압할 우려가 크다.
- ④ 외국의 선진적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유입될 뿐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내외적 긴장과 반목도 완화될 수 있다.
- ⑤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 크기를 재는 것 또한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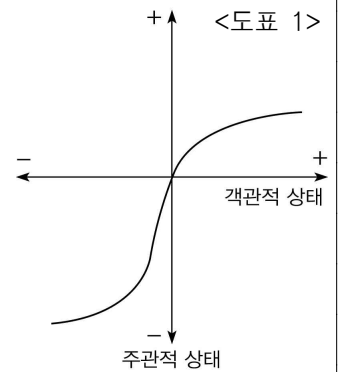
[17~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은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이 더 어두운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심리적인 만족도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양상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는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 영향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다음의 두 경우는 객관적 상태와 심리적 만족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입장료가 만 원인 음악회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그래도 당신은 만 원짜리 표를 사서 음악회를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90퍼센트 가량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반면에 다음의 경우는 양상이 달라진다. ‘당신은 음악회에 가려고 만 원짜리 표를 구입했다. 그런데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다시 만 원을 내고 표를 사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응답자들의 50퍼센트 미만이 표를 다시 사겠다고 대답한다.

이처럼 결과가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것임에도 심리적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심리적인 틀’을 만드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음악회를 보게 되면 전자와 후자 모두 이만 원이 들겠지만, 전자의 경우 음악회라는 항목에 배당된 심리적 금액은 만 원이며, 잃어버린 만 원은 음악회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음악회라는 항목에 이만 원이라는 금액이 배당된 것이다.

심리적 틀 만들기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지를 일반화한 이론이 이른바 ‘전망 이론’이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평축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상황의 객관적 상태다. 수평축의 양의 수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음의 수치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수직축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상황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 심리적 반응이 상황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의 상관성은 교차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것은 곡선으로 나타나 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과 수직축의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의 변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심리적 반응이 상황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 수평축과 수직축이 교차하는 중립점은 자신에게 유리한가 손해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중립점은 심리적으로 유동적이며, 선택의 상황에서 심리적인 중립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도 달라진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더 유리한 지점 혹은 더 불리한 지점에 심리적인 중립점을 둘 수 있으며, 그 중립점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형성된다. 예컨대 자신의 것이 되기 전보다 자신의 것이 된 다음에 그 물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심리적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17. 윗글과 관련하여 <도표 1>을 통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평축과 수직축의 의미로 볼 때, 높은 지위로 승진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는 수평축과 수직축 모두 양(+)의 위치에 해당하겠군.
- ② 중립점의 의미로 볼 때, 같은 일을 만 원에 하려는 사람의 경우는 그보다 많은 액수를 기대하는 사람의 경우보다 중립점이 왼쪽에 위치하겠군.
- ③ 수평축과 수직축의 양(+)의 위치에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아, 월급이 두 배로 오를 때마다 월급에 대한 만족도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겠군.
- ④ 수평축과 수직축의 음(-)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그래프의 양상으로 보아, 만 원을 잃는 것에 비해 이만 원을 잃는 것에 의한 상실감이 꼭 두 배인 것은 아니겠군.
- ⑤ 수직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그래프의 변화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아, 길거리에서 주운 돈 만 원보다 길을 가다 잃어버린 돈 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겠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두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의 상황이 나아져 만족도가 커진 상황을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파레토는 경제적 효용을 따져 최선의 상황을 모색하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갑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와, 갑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파레토에 의하면 상황 B가 을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갑이 250원을 더 받을 수 있기에 상황 A보다 우월하다. 즉 상황 A에서 상황 B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시간당 500원을 받고 을이 시간당 1,000원을 받는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의 임금이 인상되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러나 만약 갑은 100원이 인상되고 을은 10원이 인상되는 상황과 갑은 10원 인상되고 을이 100원 인상되는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레토 이론은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최적은 자유 시장에서 유용한 경제학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한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갑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에서 갑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한다고 가정하자. 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만족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 전환에 대해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을 것이나 갑은 25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자신이 더 받는 250원 중에서 100원을 주기로 제안한다면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 B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 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레토 최적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파레토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19.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희는 사과 6개, 철수는 배 6개를 갖고 있다. 철수는 사과에서 얻는 만족도가 배에서 얻는 만족도의 2배이고, 영희는 사과와 배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며 영희와 철수 모두 서로의 만족도를 잘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 철수는 자신의 배 6개를 영희의 사과 6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영희는 이에 반대하고, ㉡ 자신의 사과 중 3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철수가 반대하여, 영희는 마지막으로 ㉢ 자신의 사과 가운데 4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안을 철수가 수용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		㉠		㉡		㉢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영희	6개	0개	0개	6개	3개	6개	2개	6개
철수	0개	6개	6개	0개	3개	0개	4개	0개

- ① ㉠에 대해 영희가 반대한 이유는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2배로 증가하지만,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② ㉡에 대해 철수가 반대한 이유는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1.5배 증가하지만,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③ ㉢에 대해 서로 합의한 이유는 영희와 철수의 만족도 모두 최초에 비해 증가하였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④ 최초의 상황이 ㉠나 ㉡로 바뀌어도 모두 파레토 개선으로 볼 수 있다.
- ⑤ ㉠~㉢ 중 영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에서 가장 크며, 철수 역시 그러하기에 ㉢를 파레토 최적으로 볼 수 있다.

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를 설명했다
- ② 경제 주체 간의 타협보다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 ③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 ④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이기적인 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 ⑤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설명했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심리학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대별된다. 먼저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은 유권자 대부분이 일관된 이념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그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곧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혈연, 지연 등에 따른 사회 집단에 대해 지니게 되는 심리적 일체감처럼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따지기보다 정당 일체감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유권자를 정당이 제시한 이념이 자신의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그 효용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공간 이론은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으로 나뉜다.

초기의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이념 공간을 일차원 공간인 선으로 표시하고, 보수적 유권자 X, 진보 정당 A, 보수 정당 B의 이념적 위치를 그 선에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근접 이론은 X와 A, B 간의 이념 거리를 각각 'X-A'와 'X-B'로 계산한 다음, 만약 X와 A의 이념 거리가 X와 B의 경우보다 더 가깝다면 X는 A에 더 큰 효용을 느끼고 투표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유권자 분포의 중간 지점인 중위 유권자의 위치가 양당의 선거 경쟁에서 득표 최대화 지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X가 이념 거리가 더 가깝다는 것만으로 자신과 이념이 다른 A를 지지할까? 이에 대해 방향 이론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념 원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같은 방향이되 이념 원점에서 더 먼 쪽에 위치할수록 그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이 증가하며, 반대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다른 방향일 경우에는 효용이 감소한다고 본다. 가령 이념 원점이 5라고 한다면, X의 A와 B에 대한 효용은 각각 '-|5-X|×5-A'와 '|5-X|×5-B'로 계산되는데, 이때 X는 이념 거리로는 비록 A가 가깝다 할지라도 B에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방향 이론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은 그 정당이 유권자와 같은 이념 방향의 극단에 있을 때 최대화된다고 본다.

두 이론은 이념에 기초한 효용 계산을 통해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의 '어리석은 유권자' 가설을 비판했지만 한계도 있었다. 근접 이론은 미국의 정당들이 실제 중위 유권자의 지점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방향 이론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념적 극단에 있는 정당이 실제로 수권한 경우가 드물다는 비판에 각각 직면했다. 이에 근접 이론은 정당이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정당 일체자)들로부터 멀어질 경우 지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중위로부터 다소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고 이론적 틀을 보완했다. 또 방향

이론은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념 범위인 관용 경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당이 관용 경계 밖에 위치하면 오히려 유권자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이론에 반영했다.

이러한 후기 공간 이론의 발전은 이념적 중위나 극단을 득표 최대화 지점으로 보았던 초기 공간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정당 일체감이나 그 밖의 심리학적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공간 이론은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비판적으로 전망했던 '세련된 유권자' 가설을 무리 없이 입증해 왔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이념에 기초해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편 공간 이론의 두 이론은 유권자의 효용 계산과 정당의 득표 최대화 예측에서 이론적 경쟁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설명력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의회 선거를 예로 들면, 근접 이론은 미국처럼 ㉠ 양당제 아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를 더 잘 설명해 왔다. 반면에 방향 이론은 유럽 국가들처럼 ㉡ 다당제 아래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선거를 더 잘 설명해 왔다. 한 연구는 영국처럼 ㉢ 다당제 아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여당에 대해 기대하는 효용은 근접 이론이 더 잘 설명하고, 유권자가 야당에 대해 기대하는 효용은 방향 이론이 더 잘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 환경에 따라 정당들의 득표 최대화 전략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21.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이 심리적으로 요인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 ② 공간 이론은 유권자와 정당 간의 이념 거리를 통해 효용을 계산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였다.
- ③ 후기 공간 이론의 등장으로 득표 최대화에 대한 초기의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 간의 이견이 해소되었다.
- ④ 후기 공간 이론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념의 비중이 커졌다.
- ⑤ 후기 공간 이론은 정당 일체감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세련된 유권자 가설을 입증했다.

22. ㉠~㉣에서 득표 최대화를 위한 정당의 선거 전략을 공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근접 이론은 ㉠에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후기 근접 이론은 ㉠에서 정당 일체자의 이탈을 우려한 야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하지 못함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후기 방향 이론은 ㉣에서 정당 일체자의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④ 초기 근접 이론은 ㉣에서 중도적 유권자의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⑤ 후기 방향 이론은 ㉣에서 중도적 유권자의 관용 경계를 의식한 야당이 이념적 극단 위치로 이동하지 못함을 설명할 수 있다.

23. <보기>의 선거 상황을 가정하여 윗글의 이론들을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의 그림은 좌우 동형으로 이루어진 N국의 A당과 B당의 정당 일체자 분포와 여기에 무당파 유권자가 포함된 전체 유권자의 분포를 나타낸다. N국은 1) A당과 B당의 정당 일체자가 투표자인 예선을 통해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한 후, 2) 전체 유권자가 투표자인 본선을 통해 최종 대표자를 선출한다.

가. 후보자 이념 위치: A당(A1=0, A2=4), B당(B1=7, B2=9)
 나. 중위 유권자 위치: A당=3, B당=7, 전체 유권자=5
 다. 이념 원점=5
 르. 관용 경계: 두 후보자가 동시에 유권자 위치의 ±2를 초과하면 유권자는 기권한다고 가정함.
 모. 두 후보자에 대한 효용이 같다면 유권자는 기권한다고 가정함.
 바. A당과 B당의 정당 일체자 분포의 규모는 같음.

- ① 초기 근접 이론은 B1이 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 ② 초기 근접 이론은 A2가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 ③ 초기 방향 이론은 본선에서 승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 ④ 후기 근접 이론은 A2가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 ⑤ 후기 방향 이론은 A1이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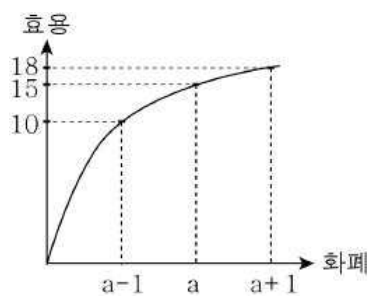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융 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그 중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한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다. 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 상품 ㉡에 500원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때 40%의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의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기대 효용은 투자 수익인 2,000원에 40%를 곱한 값(2,000×0.4=800)과 투자 손실인 -500원에 60%를 곱한 값(-500×0.6=-300)의 총합인 500원이 된다.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이고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면 위험 추구형이다. 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 상품 ㉡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고, 손실을 우려하여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려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다.

이처럼 기대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왼쪽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투자에 성공해서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증가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8의 차인 3이 된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여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0의 차인 5가 된다. 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3)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5)을 더 크게 인식하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만일 ㉠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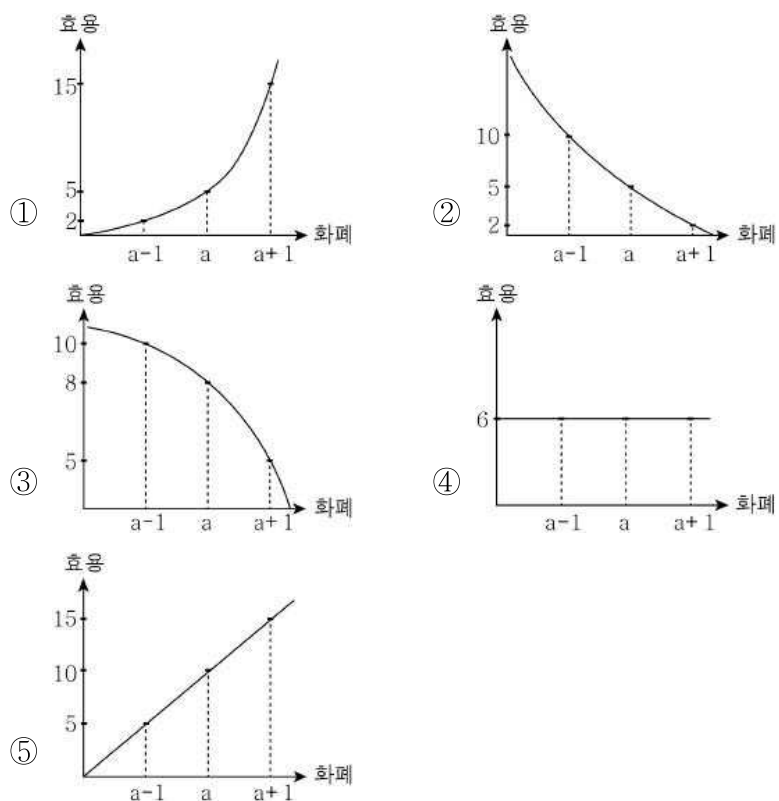
은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 한계효용 : 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24. 밑글에서 언급된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투자 상품의 유형 ② 기대 효용의 계산 방법
- ③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 ④ 투자 성향의 분류 효과
- ⑤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

25. ㉠과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26. 밑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귀하는 5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두 상품 중 하나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느 경우를 더 선호하십니까?

구분	투자 비용	투자 수익	수익을 얻을 확률	기대 효용
A 상품	50	450	20%	50
B 상품	50	200	40%	50

구분	A 상품	B 상품	현금 보유
갑		✓	
을	✓		
병			✓

- ① '갑'은 '병'에 비해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하겠군.
- ② '갑'과 '을'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하였군.
- ③ '을'은 '갑'에 비해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군.
- ④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
- ⑤ '병'은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하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홍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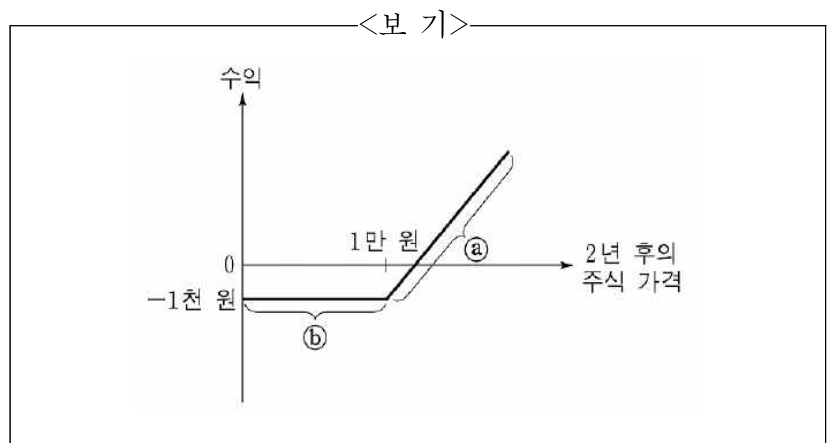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28.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29.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b)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b)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a)와 (b)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30.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1~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32.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_b 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 | |
|---|-----|-----|-----|
| | ㉡ | ㉢ | ㉣ |
| ① | 줄이면 | 크다면 | 줄이는 |
| ② | 줄이면 | 크다면 | 늘리는 |
| ③ | 줄이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④ | 늘리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⑤ | 늘리면 | 작다면 | 늘리는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웹상에서는 즉각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관련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품 사양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훨씬 풍부하고 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실제 사용상의 특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공급자에 대하여 ㉠ 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게 되었다. 게다가 공동 구매를 통하여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용의 감소이다. 부품의 구매에서부터 생산, 출하, 판매까지 전 단계가 자동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된다. 그 결과는 대부분 구매, 재고, 물류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난다. 정보 기술은 이렇게 절약을 통한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하고 있다. 기존의 소매업은 점포의 위치가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으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는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고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 단계가 해체됨을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처리의 특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표준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보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정보 처리 방법(기술 표준)에 따라야만 의미가 통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는 열위에 있지만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정보의 압축이나 재생 방법, 정보 기록 매체 산업의 기술 표준, 사무용 오피스 웨어의 보급 등 광범한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 상호 작용의 경제적 특성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참여에 의해서도 증가하는 ㉡ 망외부성(網外部性)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인터넷의 한 특정 공간으로 유인하는 능력, 즉 콘텐츠의 매력에 경쟁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작적 사고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매력적으로 가공, 구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능력이 중요함을 뜻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 처리 기술은 기업의 거래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문서 처리가 자동화되고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니터링된다. 기업 내부를 흐르는 정보는 마치 사람의 신경처럼 조직화된 망을 통해 유통되며 필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제공된다. 이것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신경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마찰 없는 경제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혹은

마찰에 따른 갈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다른 거래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자상거래는 수요자에게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전자상거래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생산자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 ③ 전자상거래는 거래 단계의 해체를 가져옴으로써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는다.
- ④ 디지털 정보 처리의 특성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해 준다.
- ⑤ 인터넷 경제는 정보의 창출보다 기존의 정보를 매력적으로 가공, 구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능력에 더 의존한다.

34. ㉠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품을 검색하여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을 파악한다.
- ② 상품 공급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 ③ 구매하려는 상품의 매출량, 소비자 선호도 등을 조사한다.
- ④ 인터넷 웹상에서 동호회를 조직하여 상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안티사이트를 방문하여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35. 윗글을 읽은 후, 탐구 학습을 위한 수행 과제를 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정보를 매력적으로 가공,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② 경제의 발전 양상을 시대별로 조사해 보고 전통적인 경제의 특성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다.
- ③ 정보화 시대에서 기술 표준을 장악하지 않고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본다.
- ④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 양상을 조사해 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 ⑤ 디지털 신경망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마찰 없는 경제의 이상적인 모습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토의해 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의 개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망외부성(網外部性)에 의한 가입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여 공정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 ①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것
- ②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영업이 가능해진 것
- ③ 가치에 대한 절대적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장 광고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는 것
- ④ 어떤 상품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품이나 정보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 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구비되면 기업이나 개인 누구든지 항상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커진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주체는 자발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정보 비대칭 해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선별’과 ‘신호 발송’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별이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장치에 반응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다. 한편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신호 발송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의 작동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균형’이란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호 발송이나 선별이 효과적이라면 ‘분리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리 균형은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가격 체계로 차별화된 시장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혼합 균형’ 상태 하에서는 신호 발송이나 선별과 같은 수단과 상관없이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단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피해가 증가하여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이 커진다.

A기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B기업은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제품이 혼합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다면 A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누적되어 시장 자체가 위면당하면, B기업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A기업이 B기업과는 차별화된 저 가격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호를 발송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 고품질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B기업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저가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을 피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품질 제품 수요자도 혼합 균형 상태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호 발송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유리한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 예이다.

분리 균형 상태와 혼합 균형 상태는 경제 주체의 전략, 시장의 규모, 정보 비대칭의 정도, 시장 참가자의 신호와 선별에 대한 신뢰 수준 등에 따라 유지되거나 소멸한다. 이를테면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의 변

화에 의해 혼합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37. 윗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균형의 형태에 따른 경제 주체의 정보 비대칭 대응 전략
- ②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시장 균형의 형태
- ③ 시장 차별화의 지속을 위한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의 생성 과정
- ④ 정보 비대칭 상황 하에서의 분리 균형과 혼합 균형 상태의 상호 연관성
- ⑤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와 관련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따른 손익 변화

38. ‘선별’이나 ‘신호 발송’이 나타난 사례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소비자 협회의 인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비싸게 팔린다.
- 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 부담액을 설정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 ㄷ. 기업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 ㄹ. 낯선 곳에 가면 현지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상점을 방문하여 가격을 물어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 ㅁ.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업무 능력이 낮은 지원자는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까 봐 지원하기를 꺼린다.

-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39. 윗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기>의 시장이 도달할 상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 기>

어떤 상품 시장의 두 기업 ‘갑’과 ‘을’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두 기업은 이 표의 정보를 공유하며, 상대 기업도 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 기업이 신호 발송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고가격을, 신호 자제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저가격을 책정한다. 표에는 두 기업의 선택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각 기업이 얻게 되는 순이익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각 셀의 두 수 중 처음 것은 갑, 두 번째 것은 을이 얻게 되는 순이익을 의미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경우에 갑은 5, 을은 10의 순이익을 얻는다.

		을의 전략	
		신호 발송	신호 자제
갑의 전략	신호 발송	(5, 10)	(6, 8)
	신호 자제	(7, 8)	(7, 7)

- ① 갑과 을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혼합 균형 상태
- ② 갑과 을 모두 신호를 자제하는 혼합 균형 상태
- ③ 갑은 신호를 발송하고 을은 신호를 자제하는 분리 균형 상태
- ④ 갑은 신호를 자제하고 을은 신호를 발송하는 분리 균형 상태
- ⑤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평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평’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평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40. 다음 중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41. 문맥상 ㉠과 ㉡의 관계와 대등한 것은?

- | | |
|---------------------------|-------------|
| ㉠ | ㉡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 칼 |
|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 64세인 사람 |
|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 어머니의 여동생 |
|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 헤엄칠 수 없는 고래 |
|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 흑연 심 |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43.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이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겠어.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1685~1753)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45. 다음 중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6~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역학에 ㉠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46.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4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 자리 이진수는 모두 2ⁿ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48.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 ⑤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49.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5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ㄱ)~(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ㄷ)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ㄹ)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ㄱ)과 (ㄴ)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ㄷ)과 (ㄹ)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B는 A와 달리 (ㄹ)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51.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거(依據)하면 ② ㉡: 인지(認知)하게
- ③ ㉢: 소지(所持)하게 ④ ㉣: 제기(提起)한다
- ⑤ ㉤: 부합(符合)한다

[52~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은 전문 경영인 체제의 확립을 가리키지만 그로 인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주식 소유의 분산으로 인해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져 경영자들이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인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 별리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의미는 달랐다. 그는 ‘회사체제’라는 현대 사회의 재산권적 특징을 포착하고자 이 개념을 고안했다. 그에게 있어서 ‘소유’, ‘지배’, ‘경영’은 각각 (1) 사업체에 대한 이익을 갖는 기능, (2) 사업체에 대한 권력을 갖는 기능, (3) 사업체에 대한 행위를 하는 기능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각 기능의 담당 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별리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세 기능이 통합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19세기에 많은 사업체들에서 소유자가 (1)과 (2)를 수행하고 고용된 경영자들이 (3)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일어났다. 20세기 회사체제에서는 많은 사업체들에서 (2)가 (1)에서 분리되었다. 이제 (1)은 사업체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표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 즉 비활동적 재산의 점유가 되었고, (2)는 물적 자산과 사람들로 조직된 살아 움직이는 사업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 즉 활동적 재산의 점유가 되었다. 주식 소유가 다수에게 분산된 회사에서 (2)는 창업자나 그 후손, 대주주, 경영자, 혹은 모회사나 지주회사의 지배자 등 이사를 선출할 힘을 가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사기업에서는 통합되어 있던 위험 부담 기능과 회사 지배 기능이 분리되어 주주와 지배자에게 각각 배치됨으로써 회사라는 생산 도구는 전통적인 사유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별리는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현대 회사를 준공공회사라고 불렀다.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별리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세 가지 답을 검토한다. 첫째, 재산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에 입각한다면 회사가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수행하는 소유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전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이익의 유일한 청구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에 입각하면 회사는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전통적인 법학과 달리 재산권의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보호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재산의 보장 자체가 아니라 부를 얻으려는 노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기능 때문이라면, 회사가 유용하게 사용되

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지배자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셋째, 이처럼 법학과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리를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체제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그릇된 결론들이 도출된다는 것은 두 학문의 전통적인 논리들이 전제하고 있는 19세기의 자유방임 질서가 회사체제에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유방임 질서가 기초하고 있던 사회가 회사체제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서는, 회사가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최악의 대안이고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차악의 현실적인 대안일 뿐이다. 결국 회사체제에서 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별리의 결론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거나, 이를 실현할 합리적인 계획들을 공동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회사법 영역에서 경영자의 신인의무의 대상, 즉 회사를 자신에게 믿고 맡긴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을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 관계자들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별리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회사가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던 것으로 흔히 오해된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주주 이외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가 주장한 이유는 주인이 여럿이면 경영자들이 누구도 섬기지 않게 되고 회사가 경제적 내전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경제력이 집중된 회사 지배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경영자뿐 아니라 지배자에게도 부과하여 지배에 의한 회사의 약탈로부터 비활동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소득세법이나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법 등과 같은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서 공동체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의 이익에 비활동적 재산권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52.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한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는 전통적인 법학 논리에 입각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 ② 별리는 회사법에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경우 회사 지배자들의 권력을 키워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별리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의 신인의무 대상을 주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 ⑤ 별리와 달리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에 따르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3. [지배]에 대한 ㉠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준공공회사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기능이다.
- ② 전통적인 의미의 사유재산에서는 소유자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 ③ 회사체제의 회사에서 이 기능의 담당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회사체제의 회사에서는 활동적 재산을 점유한 자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 ⑤ '경영'의 담당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경영'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54. <보기>의 '뉴딜'에 대해 ㉠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춘 1차 뉴딜은 경영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주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노사관계와 사회보장 등의 분야로 개혁을 확장했던 2차 뉴딜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제반 권리를 합법화했고 실업수당의 보장 수준과 기간을 강화했으며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했다. 이러한 1차 뉴딜과 2차 뉴딜의 차이점 때문에 뉴딜은 흔히 체계적인 청사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된 일관성 없는 정책들의 연속이었다고 평가받는다.

- ① 1차 뉴딜은 지배에 의해 회사가 약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사법 영역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1차 뉴딜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2차 뉴딜은 주주의 재산권이 사회의 이익에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2차 뉴딜은 회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회사법 바깥 영역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1차 뉴딜과 2차 뉴딜은 준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5~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관찰 사례를 토대로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가 입증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관찰 사례는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다른 명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어떤 명제가 다른 명제를 함축한다는 것은 앞의 명제가 참일 경우 뒤의 명제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뜻한다. 과학적 명제들은 커다란 체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 사례가 단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만 입증력을 갖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여기서 “모든 C는 B의 속성을 지닌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 만일 C가 A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면, 앞서 언급한 그 관찰 사례는 “모든 C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 역시 입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직관과 부합한다. 즉, 한 관찰 사례가 어떤 명제를 입증할 경우 그 사례는 그 명제가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임의의 명제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를 α 규칙이라고 부르자.

한편,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D에 대해서는 어떨까? 앞서 서술한 그 관찰의 사례는 “모든 D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할 것인가? 적잖은 이들이 이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의 대답을 제시한다. 예컨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모든 구리는 도체다.”라는 명제가 입증되었다면 “모든 금속은 도체다.”라는 명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를 일반화하여 말하면, 한 관찰 사례가 어떤 명제를 입증할 경우 그 사례는 그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임의의 명제도 입증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β 규칙이라고 부르자.

한 사례가 서로 연관된 두 명제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규정하는 위의 두 규칙은 모두 직관적 호소력을 지닌다. 그런데 문제는 α 규칙과 β 규칙을 모두 인정할 경우 곤혹스런 결론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이다. 어떤 관찰 사례에 의해 어떤 명제 P가 입증되었다고 하자. 이 관찰 사례는 ㉠ 에 의거하여 ㉡ 라는 명제를 입증할 것이다. 이 명제에 포함되어 있는 Q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명제가 참일 경우 명제 P 역시 참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 명제는 P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 Q가 어떤 내용의 명제인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 명제에 ㉢ 을 적용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관찰 사례가 명제 Q도 입증한다고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강조했다듯이 우리는 명제 Q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요구한 바 없다. 문제의 관찰 사례는 이제 임의의 명제 Q를 입증하게 된 셈이다. 물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일견 합리적인 두 가지 규칙 α 와 β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55. 윗글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 ㉢ |
|---|-------------|----------------|-------------|
| ① | α 규칙 | “P이고 Q이다.” | β 규칙 |
| ② | α 규칙 | “P이지만 Q는 아니다.” | β 규칙 |
| ③ | α 규칙 | “Q이면 P이다.” | β 규칙 |
| ④ | β 규칙 | “P이고 Q이다.” | α 규칙 |
| ⑤ | β 규칙 | “P이지만 Q는 아니다.” | α 규칙 |

56. 윗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 ① α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는,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가 함축하는 모든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 ② β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는,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가 함축하지 않는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 ③ α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S에 관한 모든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 ④ β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S에 관한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 ⑤ α 규칙과 β 규칙을 모두 적용하면,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S에 관한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빠른 정답]

1. ④	2. ⑤	3. ①	4. ④	5. ⑤
6. ⑤	7. ③	8. ②	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④	14. ⑤	15. ④
16. ①	17. ③	18. ②	19. ⑤	20. ⑤
21. ②	22. ③	23. ⑤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⑤	29. ③	30. ②
31. ②	32. ①	33. ④	34. ②	35. ②
36. ④	37. ②	38. ④	39. ④	40. ④
41. ①	42. ④	43. ⑤	44. ③	45. ①
46. ③	47. ④	48. ②	49. ⑤	50. ⑤
51. ③	52. ④	53. ①	54. ⑤	55. ④
56. ③				

별도의 해설은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